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신은정¹ · 김희숙²

¹경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¹,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²

Effects of a Peer Gatekeeper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uicide Prob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Shin, Eun Jung¹ · Kim, Hee Sook²

¹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²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Peer Gatekeeper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uicide probability for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recruited participants were forty-three students a vocational high school in G city. The study was done from August 31, 2012 to September 25, 2012. To test the effects of the Peer Gate Keeper Training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22) and a control group (21). The Peer Gate Keeper Training Program was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posttest was completed.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t-test, and Fisher exact test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After attending the Peer Gate Keeper Training Program,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uicide probabilit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3.24, p=.002$) ($t=2.16, p=.036$) ($t=-2.95, p=.006$).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ate Keeper Training Program enhance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reduces suicide probability in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this program is a good strategy that teacher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can use for suicide preven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Suicide, Adolescen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Gatekeepe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1999년 인구 10만 명 당 15명, 2010년 33.5명으로 10년에 두 배씩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

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0대 자살률의 증가로 2000년에 3.8명이었던 청소년 자살률이 2010년에는 5.2명이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로 보고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청소년기에 자살생각을 가진 학생은 사회적 기능 및 정신기능의 손상 위험이 있고(Steinhausen & Winkler Metzke,

주요어: 자살, 청소년, 자존감, 인간관계, 게이트키퍼

Corresponding author: Kim, Hee Soo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jin-dong 2-ga, Jung-gu, Daegu 700-420, Korea.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 이 논문은 제 저자 신은정의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3년 5월 31일 / 수정일 2013년 7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2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04) 성인이 된 이후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11배나 높아지는 데(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Fitzmaurice, 2006), 이는 청소년기에 해결되지 못한 심리, 정서적 갈등의 문제들이 개인의 전 생애 걸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일으키고 그 파급효과도 커서, 혈연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그 충격으로 자살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Mitchell, Sakradia, Kim, Bullian, & Chiappetta, 2009). 또한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친구의 자살 행동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미래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 발전을 해치는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개인을 넘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붕괴시키고, 결국 한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로 여러 측면에서 성장과 발달 중에 있으며, 자기중심성이 남아 있고 정서상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충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자살생각이 많다(Steinhausen & Winkler Metzke, 2004). 이 시기는 성인기와는 달리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병적 임상군이 아님에도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충동적인 자살시도의 위험이 많아진다. 그 중 고등학생은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강하게 직면하며 학업성취와 진로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 청소년기 중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 중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Jo et al., 2002).

그러나 당면한 위기 앞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일수록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지지를 받아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자살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Park, Park, & Kim, 2012; Jung, 2011). 특히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자존감 저하는 자기학대와 무가치감을 유발하여 우울과 불안 수준을 높이고, 각종 청소년 비행이나 부적응,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Jung, 2011). 또한 청소년기의 긍정적 인간관계 경험은 자존감 형성의 근원적 기능을 하며 건전한 자기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Kim, 2005).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로부터의 피드백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동

시에 갈등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Esposito & Clum, 2002). 특히 부모, 친구 및 선생님 등의 주요 관계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갈등은 절망감과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여 자살 사고를 높이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였다(Kim, Park, Park, & Kim, 2012). 또한 청소년기는 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가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친구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속에서 의사소통 기술 및 갈등해결기술을 습득하며(Helsen, Vollebergh, & Mees, 2000) 다양한 욕구를 충족한다. 부모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자살의 위험신호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시, 공간적 이점 속에 있다. 또한 자살 생각 시 청소년의 44.2%가 또래 친구를, 30.6%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Kim, Park, Kim, & Park, 2011),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교사나 상담자보다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생각 시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경우가 불과 4.7%, 또래의 자살위험성을 알게 되었을 경우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이 10%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친구의 자살사고에 대해 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Park, Song, Kim, & Song, 1993).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성과위주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들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자살예방 교육들은 대부분이 1회성으로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인지교육에 그치고 있다(Sohn, 2011).

이상의 보고들은 또래친구가 청소년들의 자살 위기 중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의 단편적인 예방교육에서 한층 더 발전된 통합적인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살의 보호요인인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둔 접근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기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집단 활동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내적변화를 이끄는 한편 생명의 소중함 인식, 자살의 위험신호 발견, 자살위험이 있는 친구 돕는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및 연계방법들을 교육하여 개인들의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중재 프로그램의 폭넓은 확대 및 적용이 시급하다.

청소년 자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부각 되면서 지역사회 도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집단 활동을 활용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간호중재로 적용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자존감과 친구관계를 향상시켜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여, 향후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정신간호중재 영역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과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존감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2.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친구관계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

가설 3.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유사실험연구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는 일개 고등학교 1학년

생으로 학업성취도가 비슷한 2개의 반을 임의 표집 하였으며 동전 던지기를 하여 앞면이 나온 반을 실험군으로 할당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외생변수는 동질성 검정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의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80, power $1-\beta = .80$, 단측 검정으로 독립 t-test에 필요한 표본 수는 각 집단 최소 21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의한 실험군의 26명 중 자퇴자가 1명 발생하였고, 결석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2회 이상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지각 및 프로그램 도중 이탈로 인해 참여시간이 회당 30분 미만인 학생 3명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대조군에서 결석 1명, 교무실에서 사적인 용무를 보는 관계로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4명이 탈락되어 실험군 22명과 대조군 21명으로 총 43명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급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은 해당 학급에 남아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존감 (Self-esteem)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Jeon (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5개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인 Likert식 4점 척도이다.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2) 친구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riends)

친구관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urray와 Greenberg (2000)의 애착관계 도구와 Nolten (199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Moon (2002)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3개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은 다시 3개의 하위영역 즉, 우호관계 8개 문항, 불만관계 8개 문항, 사회적 지지 관계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oon (2002)의 불만관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이를 제외한 우호관계 8개 문항과 사회적 지지 관계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Moon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친구관계에

서 우호관계 .89, 사회적 지지관계 .94, 전체 Cronbach's α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친구관계에서 우호관계 .79, 사회적 지지관계 .85, 전체 Cronbach's α 는 .89였다.

3) 자살위협성 (Suicide Probability)

Cull과 Gill (1988)의 SPS (Suicide Probability Scale, SPS)를 Go, Kim과 Lee (2000)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번안·수정한 청소년자살위협성 예측 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for Adolescents)를 Kye (2007)가 4점 Likert식 척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첨가하여 5점 척도로 변경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대부분 그렇다'로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이다. 하위영역은 부정적 자기평가 10문항, 적대감 5문항, 절망감 11문항, 자살사고 5문항 이며, 역문항은 10문항 이다. Kye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부정적 자기평가 .56, 적대감 .73, 절망감 .76, 자살사고 .79였으며 전체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4. 실험처치

본 연구자는 정신보건간호사로서 정신병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넓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신전문간호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야기치료상담사 자격증 및 아동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네마치료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어시스트 과정을 수료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프로그램은 2011년 대구시 교육청에서 개발되어진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Kim et al., 2011). 정신간호학 교수 1인, 1급 정신보건간호사 1인 및 상담심리전공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검증받아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고, 정신보건수련요원 2명, 간호학 석사학위를 가진 보건교사 1명이 보조진행자로, 주 1회씩 1시간의 워크숍을 가지도록 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고 활동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인지행동치료이론을 토대로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6회기 이상의 구성이 짧은 회기보다 효과가 크다는 Kim과 Park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 8월 31일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주 2회, 50분씩 총 8회기를

자율학습이 가능한 6교시에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1, 2, 3회기 '우리는 소중한요'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활동을 진행하였다. 생명존중과 관련된 단어로 모둠명을 지어보고 생명경시 현상 비디오 시청과 생명존중에 대한 O, X 퀴즈를 풀기 및 '나의 생명존중 유형알기'를 통해 생명에 대한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행동을 알아보았다. 또한 생명존중 영상을 보며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들의 직접 써준 '칭찬 사과바구니 종이'를 받고 그것을 발표하면 듣고 있던 친구들이 '그래 맞아!'를 외치며 격려해 주었고 발표자는 '감사합니다'는 말로 화답했다. 또한 반 친구의 장점만을 듣고 그 친구를 찾는 '바로 너지?' 게임을 통해 상대를 인정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내 이름의 의미, 나의 태몽,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 부모님은 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등을 생각해 보고 모둠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뒤 발표 하고, '나는 내가 제일 좋다'라는 구호로 자존감 향상 박수를 배워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4, 5회기 '우리는 이래서 힘들어요'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향상시키는 것과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 자살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살생각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퀴즈'를 통해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나만의 위기 극복 노하우를 모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중재인 빈 의자기법, 긍정적 사고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나의 힘든 상황에 대한 생각 바꾸기'를 해 보았다.

6, 7, 8회기 우리는 생명지킴이에서는 자살위기에 처한 친구를 돕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적용 하여 또래지킴이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친구에게 관심 가지기' 동영상을 보며 자살의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단서들을 배운 후 모둠 대항전으로 자살단서 찾기 빙고게임을 통하여 흥미를 주고 집중을 강화하였다. 또한 친구돕기 5단계를 배워 가상의 상황에서 역할극을 적용해 보았으며 위기상황에서 자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기법들을 재현하여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였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각처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생명 불씨 살리기 의식을

진행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살의 위기에 놓인 친구를 도우며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또래지킴이 임명식을 진행하였다(Table 1).

5. 자료수집

국립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2-013)을 받았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G시에 소재하는 일개 남자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학교장에게 프로그램 장소와 연구 진행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8월 31일부터 2012년 9월25일 까지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 반에 들어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고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조사자 간의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는 정보를 통일하고 자료수집방법과 절차 및 도구들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연구보조원을 교육하였다. 프로그램은 매 주 화, 금요일 주 2회, 50분씩 총 8회기를 진행하였고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가능한 6교시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인 연구자를 제외한 2명의 연구보조원이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8월 31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종결하는 9월 25일 사후 검사

Table 1. Contents of Gatekeeper Training Program

Session	Theme	Contents	Time (minutes)	Stage of CBT
1	We're precious	- Pretest - Orientation of program - Self-introduction - Introducing the name of groups using word for life respect	50	Irrational belief & behavior research stage
2		- Watching video about disrespecting life - O, X quiz on preciousness of life - Detecting type of respecting life on me	50	
3		- Watching video about preciousness of life - Finding about my strength through friends - Finding about my strength through my memory - Improving the self-esteem with rhythm clapping - Knowing the efforts to protect the lives	50	Rational belief reorganization stage
4	Our life is hard because...	- O, X quiz on facts about suicide - When I want to die? (Group activities) - Watching video about the reason of suicide - Knowing the damage due to suicide	50	
5		- Sharing about how to overcome my crisis (group activities) - Knowing method that helps myself in crisis situation (empty chair method)	50	Behavior reorganization stage
6	We're peer gatekeeper	- Watching video about importance of friends interest - Knowing the clues of suicide risk (Bingo game) - Practice of seeking friend's suicide clues - Knowing the 5 steps of safe talk for suicide prevention	50	
7		- Role-playing the 5 steps of safe talk - Role-playing helps myself in crisis situation	50	Rational behavior change stage
8		- Reviewing the right attitude about suicide - Pledge to suicide prevention - Oath to gatekeeper - Conveying the spark of life to friend - Posttest	50	

CBT=cognitive behavior therapy.

를 실시하였다. 2명의 연구보조원이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도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 하였다. 자료수집이 종결된 이후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조군에게 5회기의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수준 .05보다 높았고, Q-Q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은 한 그룹의 대상자 수가 5 이하인 경우는 비모수검정인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5 이상인 경우는 χ^2 -test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을 위하여 두 군 간의 중재 전후의 차이값을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도구들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3명이었다. 대상자의 출생순위는 실험군의 경우 둘째가 59.1%, 첫째가 31.8%, 대조군의 경우 첫째가 52.4%, 둘째가 33.3%로 많았다. 부친의 직업은 실험군에서는 사무직 50.0%, 생산직 27.3%, 대조군에서는 사무직이 52.4%, 생산직이 23.8%였다. 모친의 직업 유무에서는 실험군의 63.6%가 모친의 직업이 있다고 대답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71.4%가 모친의 직업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수준은 실험군의 경우 보통 이상이 81.8%, 보통 미만이 18.2%, 대조군의 경우 보통 이상이 85.7%, 보통 미만이 14.3%였다. 학업성적은 실험군의 경우 중위권이 59.1%, 하위권이 31.8%, 대조군의 경우 중위권이 47.6%, 하위권이 28.6%순이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실험군의 경우 보

통수준이 50.0%, 불만족이 36.4%, 대조군의 경우 만족 보통 불만족 모두 33.3%로 동률 하였다. 친한 친구 수는 실험군에서 5명 초과가 50.0%, 3~5명이 27.3%, 대조군에서는 5명 초과가 42.9%, 3~5명이 38.1% 순이었다. 주변 자살 시도 유무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86.4%가 없다고 하였고, 13.6%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71.4%가 없다고 하였고, 28.6%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자존감은 실험군이 평균 28.4점, 대조군이 29.0점이었다. 자살위험성의 경우 실험군의 평균은 71.0점, 대조군의 평균은 69.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인 부정적 자기평가는 실험군 27.2점, 대조군 24.4점, 적대감은 실험군이 9.8점, 대조군이 9.6점, 절망감은 실험군 26.6점, 대조군 26.8점, 자살사고는 실험군 7.4점, 대조군 8.8점으로 하위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실험군의 전체평균이 60.5점, 대조군의 전체 평균이 66.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인 우호관계는 실험군 21.5점, 대조군 24.0, 사회적 지지는 실험군 39.0점, 대조군 42.6점으로 하위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가설검정

1) 가설 1

또래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존감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또래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 후 자존감 점수는 실험처치 전 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t=3.24, p=.002$)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가설 2

또래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친구관계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또래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 후 친구관계 점수는 실험처치 전 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6, p=.036$).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t=$

2.18, $p=.035$)가 실험처치 전 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

3) 가설 3

또래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살위험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낮아질 것이다.

또래 생명지킴이훈련 프로그램 적용 후 자살 위험성 점수는 실험처치 전 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5, p=.006$). 하위영역에서는 부정적 자기평가($t=-2.54, p=.015$)에서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Table 4).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43)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 (n=22)	Con. (n=21)	Total	χ^2	p
		n (%)	n (%)	n (%)		
Birth order	1st	7 (31.8)	11 (52.4)	18 (41.9)	2.87 [†]	.220
	2nd	13 (59.1)	7 (33.3)	20 (46.5)		
	≥3rd	2 (9.1)	3 (14.3)	5 (11.6)		
Father's occupation	Productive worker	6 (27.3)	5 (23.8)	11 (25.6)	0.44 [†]	1.000
	Clerical worker	11 (50.0)	11 (52.4)	22 (51.2)		
	Service worker	3 (13.6)	3 (14.3)	6 (14.0)		
	House wife or others	1 (4.5)	1 (4.8)	2 (4.7)		
Mother's occupation	Yes	14 (63.6)	15 (71.4)	29 (67.4)	0.30	.586
	No	8 (36.4)	6 (28.6)	14 (32.6)		
Economic status	Usually less than	4 (18.2)	3 (14.3)	7 (16.3)	0.12 [†]	.527
	More than average	18 (81.8)	18 (85.7)	36 (83.7)		
Academic achievement	High	2 (9.1)	5 (23.8)	7 (16.3)	1.69 [†]	.501
	Middle	13 (59.1)	10 (47.6)	23 (53.5)		
	Low	7 (31.8)	6 (28.6)	13 (30.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ory	3 (13.6)	7 (33.3)	10 (23.3)	2.47 [†]	.316
	Middle	11 (50.0)	7 (33.3)	18 (41.9)		
	Unsatisfactory	8 (36.4)	7 (33.3)	15 (34.9)		
Number of close friends	No more than two	5 (22.7)	4 (19.0)	9 (20.9)	0.64 [†]	.789
	3~5 people	6 (27.3)	8 (38.1)	14 (32.6)		
	> 5 people	11 (50.0)	9 (42.9)	20 (46.5)		
Suicide incident of neighborhood	Yes	3 (13.6)	6 (28.6)	9 (20.9)	1.45 [†]	.281
	No	19 (86.4)	15 (71.4)	34 (79.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N=43)

Variables	Categories	Exp. (n=22)	Cont. (n=21)	t	p
		M±SD	M±SD		
Self esteem		28.4±5.11	29.0±4.86	-0.42	.678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riends	Friendship	21.5±3.53	24.0±5.89	-1.66	.104
	Social support	39.0±6.01	42.6±10.26	-1.42	.164
	Total	60.5±8.93	66.5±15.98	-1.53	.137
Suicide probability	Negative self-esteem	27.2±4.16	24.4±6.75	1.65	.107
	Hostility	9.8±3.42	9.6±4.34	0.17	.868
	Hopelessness	26.6±6.05	26.8±7.59	-0.06	.952
	Suicidal ideation	7.4±3.06	8.8±4.38	-1.22	.230
	Total	71.0±12.93	69.5±18.24	0.31	.76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Suicide Probabil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43)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 esteem	Exp. (n=22)	28.4±5.11	31.6±3.40	3.2±4.01	3.24	.002	
	Cont. (n=21)	29.0±4.86	28.7±6.34	-0.3±3.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riends	Friendship	Exp. (n=22)	21.5±3.53	24.0±3.55	2.5±4.35	1.86	.069
		Cont. (n=21)	24.0±5.89	24.3±5.01	0.3±3.34		
	Social support	Exp. (n=22)	39.0±6.01	44.3±6.25	5.4±8.04	2.18	.035
		Cont. (n=21)	42.6±10.26	43.2±10.20	0.6±6.05		
	Total	Exp. (n=22)	60.5±8.93	68.4±9.39	7.9±11.84	2.16	.036
		Cont. (n=21)	66.5±15.98	67.5±15.11	1.0±8.97		
Suicide probability	Negative self-esteem	Exp. (n=22)	27.2±4.16	22.3±5.71	-4.9±5.01	-2.54	.015
		Cont. (n=21)	24.4±6.75	23.5±6.03	-0.9±5.31		
	Hostility	Exp. (n=22)	9.8±3.42	8.7±3.56	-1.1±3.13	-1.47	.149
		Cont. (n=21)	9.6±4.34	9.8±4.59	0.2±2.54		
	Hopelessness	Exp. (n=22)	26.6±6.05	24.9±7.41	-1.7±5.87	-1.62	.113
		Cont. (n=21)	26.8±7.59	27.5±8.08	0.8±3.96		
	Suicidal ideation	Exp. (n=22)	7.4±3.06	6.0±2.26	-1.4±2.72	-1.66	.105
		Cont. (n=21)	8.8±4.38	8.7±4.29	-0.1±2.47		
	Total	Exp. (n=22)	71.0±12.93	61.9±15.68	-9.1±12.16	-2.95	.006
		Cont. (n=21)	69.5±18.24	69.5±20.33	0.0±7.6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논 의

본 연구는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존감의 효과를 본 연구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와 Beck의 인지적 치료, Meichenbaum의 자기교습훈련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존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Jung (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인간관계 및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길러진 존재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보는 긍정적인 사고 전환 연습과, ‘빈 의자 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스트레스관리 훈련을 통해 행동을 수정하고, 자존감 향상 박수를 치며 ‘나는 내가 제일 좋아’를 반복하도록

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서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 피드백 나누기를 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친구들의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과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으며, 내가 모르던 면을 친구가 칭찬해주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왜곡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등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점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 Rosenberg (1965)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자살위험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한 Kim (200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총 8회기로 구성된 것에 반해 Kim (2008)의 연구에서는 5회기의 구성으로 짧은 시간에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8회기의 프로그램동안 모듈별 보조 담당자를 배정하여 집단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인해 집단원이 서로의 생

각이나 의견을 막힘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 외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Kwon, Kang과 Kim (2008)의 연구와 집중적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학습부진학생의 자존감 및 대인관계를 향상 시켰다는 Lee, Yeo와 Kim (2005)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집단 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친구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중학생들에게 사회기술훈련을 바탕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Lee와 Chio (200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친구에게 관심가지기의 중요성을 경각시킬 수 있는 동영상의 시청과, 장점 서로 칭찬해주기, 친구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기법 및 힘든 친구 돕는 방법 5단계, 주변 지원체계에 도움청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 및 역할극을 재현해 봄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커지고 친구 관계에서의 친밀감도 깊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내었다고 사료되어진다. 또한 친구관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소속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기술훈련을 토대로 한 또래지킴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 감소 및 사회적 지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Kim (2005)의 연구와 중고등학생들의 친구관계를 향상시키고 또래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외로움 정도가 낮아지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한 Lee, Lee와 Roh (2000)와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구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며 자살의 위험신호를 찾아보게 하고 자살위험이 있는 친구를 돕는 일련의 과정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도 친구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명감과 자신 또한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다는 Byun과 Kim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관계의 개선 또는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경청 및 공감 등의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하고, 쉬운 이해를 위해 친구돕기 동영상을 시청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들을 적용해 대화를 하도록 한 것이 친구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친구관계 향상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살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인지행동치료이론을 바탕으로 중학생들에게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Kim (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수정이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Lim과 Oh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생명존중 수준을 그래프로 알아보고, 자살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O, X퀴즈와 동영상 속 사례 주인공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살의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단서 찾기 연습 및 빙고게임, 자살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상황극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살위험성의 하위영역인 부정적 자기평가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본 회기의 프로그램동안 자신이 사랑으로 자란 존재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친구들이 인정해 주는 자신의 장점을 찾고 칭찬을 들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획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사고의 긍정적 전환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어려움에 처한 친구 돕기와 치료적 의사소통기법의 실제적인 적용이 친구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여 자살위험성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관리 및 증진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신간호학의 영역 확대와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해당 지역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지역사회 내 일차서비스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자살의 위험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성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 참여 후 자존감과 친구관계는 실험처치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살위험성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낮아져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자존감, 친구관계를 높임으로써 자살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간호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중재전략 수립 시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또래지킴이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중재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사후 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Byun, S. H., & Kim, S. B. (2011). Effects of p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 Contents Society, 11*, 466-476.
- Cull, G. J., & Gill, S. W. (1988). *Suicide Probability Scale (SP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 Logical Service.
- Esposito, C. L., & Clum, G. A.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 137-146.
- Go, H. J., Kim, D. J., & Lee, H. P. (2000). A validation study of suicide probability scale adolescents (SPS-A).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680-690.
- Helsen, M., Vollebergh, W., & Mee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ts, 29*, 319-335.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30.
- Jo, S. J., Jeon, H. J., Kim, J. G., Seo, D. W., Kim, S. O., Ham, B. J., et al. (2002). Prevalence of suicide behaviors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nd risk factors of suicide attempts in junior and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 1142-1155.
- Jung, E. S. (2011). *Effect of suicide-preven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e ideation,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Kim, H. S., & Park, K. A. (2002). A research study on the effects of rebt based group career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 339-358.
- Kim, H. S., Park, W. J., Kim, M. H., & Park, G. R. (2011). *Development report of the manual on suicide crisis management for students*.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aegu.
- Kim, H. S., Park, W. J., Kim, M. H., Park, G. R., Lee, G. S., & Kim, M. H. (2011). *Development report of the manual on suicide crisis management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aegu.
- Kim, H. S., Park, W. J., Park, K. R., & Kim, M. H. (20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uicide probability among Korea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11-20.
- Kim, K. H. (2008). *Effects of the 'respect for life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uicidal risk: Focused on self-esteem, suicide probability, coping, problem solving cap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Kim, S. J. (2005). *Effects of peer-suppor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ndifferent attitude about group bullying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Kwon, H. J., Kang, Y. S., & Kim, J. E. (2008).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ling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kills of school bullying victims.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0*, 46-57.
- Kye, E. K. (2007). *The relationship of suicide probability and spiritu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H. R., & Chio, H. J. (2003). The effect of peer-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291-308.
- Lee, J. J., Yeo, K. E., & Kim, Y. D. (2005). The effect of social skills training on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6*(4), 21-35.
- Lee, S. H., Lee, J. E., & Roh, S. D. (2000).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eer counseling researc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ssociation, 1*(1), 75-92.
- Lim, Y. S., & Oh, S. J. (1999). Youth suicide and preven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2*, 141-158.
- Mitchell, A. M., Sakradia, T. J., Kim, Y. K., Bullian, L., & Chiappetta, L. (2009).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 2-10.
- Moon, E. S.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Murray, C., & Greenberg, M. T. (2000). Children's relationship with

- teachers and bonds with school: An investig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middle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 423-445.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USA.
- Park, K. E., Song, J. Y., Kim, W. J., & Song, J. Y. (1993).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Korean Youth Counselling & Welfare Institute, 2*(3), 1-64.
- Reinherz, H., Tanner, J., Berger, S., Beardslee, W., & Fitzmaurice, G.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1226-123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Press.
- Sohn, J. N. (2011). The effects of the peer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11-119.
- Statistics Korea. (2011). *Statistics of suicide rate in population*. Retrieved August 20, 2011, from http://kosis.kr/themes/themes_04List.jsp
- Steinhausen, H. C., & Winkler Metzke, C. W. (2004). The impact of suicidal ideation in preadolescenc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n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adulthood.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0*, 438-445.